



#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2년 10월

선교편지 제 4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7월 유튜브에 소개된 '강남 스타일'의 뮤직 비디오가 조회수가 3억회를 넘어 섰고, 35개국의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 (GWR) 인증 유튜브 최다 추천 (Like) 기록, 음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영국 싱글 차트 1위, 그리고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유명한 '강남스타일'을 모방한 4,000여 가지의 패러디 (Parody) 뮤직 비디오가 등록되어 있고, 이를 조회한 사람들의 수를 합치면 10억회 이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이나 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노래와 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을 즈음에는 더 놀라운 기록들이 추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춤추는 세부 교도소 재소자 (출처: 유튜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은 열악한 교통으로 인하여 동쪽에서 서쪽에 위치한 도시를 방문하려면 약 17시간 동안이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야만 하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곳이지만, 혜성처럼 나타난 '강남 스타일'이 쓰나미처럼 이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현지 대중 교통 수단인 지프니에도, 또한 고철과 플라스틱을 수집하는 행상의 수레에도, 밤낮없이 동네를 뒤흔드는 청년들의 노래에도 '강남 스타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의 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부터,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도 추는 강남 스타일의 '말 춤'을 모두들 같이 추면 좋겠다는등, 평범하지 않은 노래의 등장으로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 다양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춤추는 교도소로 유명한 필리핀 '세부'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1,000여명의 재소자들이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진기한 모습이 해외토픽으로 소개가 될 정도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소개된지 약 80여일만에 전 세계의 주요 국가를 휩쓸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동이 쉽지 않은 민다나오 섬 깊숙히까지도 '말 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이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한번도 가 보지 않았던 길을 오직 믿음과 무릎으로 조금씩 헤쳐 가야만하는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맞는 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 갈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복된 길을 열어 주시는 흥미 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롬 1:10)**

그런데 돌이켜 보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울리는 뿔과리의 역할 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하게 보이는 현지인들과의 만남 일지라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자연이나 학연, 혈연등과 같은 배경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 주는 사람도 귀하고, 어린 학생이 사소한 것을 저에게 부탁을 해주어도 너무 고맙고, 저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초대해 주면 정말 감사하고, ... 실제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의 시작은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그나마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너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 생각처럼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요즈음 '강남 스타일'의 '말 춤'이 민다나오에까지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현지인들과 친숙한 '까라바우 (물소) 춤'이라도 개발하여 이곳 선교지를 단시간에 휩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제 욕심처럼 쉽게, 빠르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와 비움을 통하여 주님의 때에 비로서 맺혀지는 진주와도 같다는 것을 선교 5년차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 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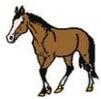
 마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밝은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주면서, 표정과 달리 요즈음 많은 걱정으로 인하여 밤 잠을 잘 못자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마띠 고등학교가 민다나오 내에서 다른 2곳의 고등학교와 함께 모범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학교 이름만 있고, 교실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협소한 시골 학교가 단시간 내에 필리핀에서 주목을 받는 학교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공부에 급급한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도서실과 컴퓨터실을 갖춘 수준 높은 학교로 알려지게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한 영성 교육 및 한국어등의 제 2 외국어 교육도 모범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중순경에 많은 교육 담당 정부 부처 손님들이 마닐라에서 마띠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주지사를 비롯한 지역 관료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 정리를 위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동원이 되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교실을 신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시골의 협소한 고등학교가 새로운 명문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띠 고등학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띠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환경 정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 75:1)**



매주 토요일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토요일 학교가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대로 이번 학기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누적해서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한 대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학생들은 점점 처지기 시작하는데, 여학생들은 도리어 점점 더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개인별 암송하는 시간 이후에, 짝을 지어서 암송을 하고, 그 이후에 그룹을 지어서 암송을 한 이후에 저와 제 아내가 한명씩 붙잡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암송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매주 상품을 나누어 주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칭찬해 주고 격려함으로 30 구절 성경 암송에 낙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성경 암송

이 토요일 성경 암송 프로그램은 마띠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30 구절의 성경 말씀을 영어로 외우는 일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가운데, 매주마다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누적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면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 1:25)**



여러 형태의 선교 사역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원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제한된 환경과 자원으로 많은 현지인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특별히 흰 눈과 같이 순수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띠 고등학교, 익핏 고등학교, 발라박 고등학교, 디고스 고등학교등과 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원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어 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디고스 지역에도 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교적 규모가 되는 대학교가 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파마스트 대학 (SPAMAST: Southern Philippines Agri-Business and Marine and Aquatic School of Technology)'은



스파마스트 대학교 정문

디고스 지역의 농,어업 기술 개발 관련 1,000 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는 4년제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마띠 지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금까지 방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생을 주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 선교를 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많은 바램이 있었지만,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주변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파마스트' 재학생 중에서 기독 청년을 연결 시켜 주셔서, 9월 중에만 '스파마스트 대학교'를 3번 방문하며 하나님께 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계획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길을 따라 '스파마스트 대학'의 복음화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기도 요청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디고스 학원 선교 센터 설립을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 토요 프로그램과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